

데스크 시각



김미은
편집부국장 겸 문화부장

지난주 규모는 작지만 흥미로운 전시회에 다녀왔다. 광주 공동 예술의거리 미로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별 별별서’전(5월 28일까지)이다. ‘별별별서’란 이름에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다양한 가치와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생각과, 노동 및 삶이 어우러졌던 옛사람들의 생활 현장인 ‘별서’(別墅)의 의미가 담겼다.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동명동 근대 가옥을 리모델링 한 문화예술 공간에 설치될 작품을 미리 만나 보는 자리였다. 가옥에서의 문화 향유를 떠올리며 관람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다락에서 음악을 듣고, 정원에 앉아 작가가 빚은 찻잔에 차를 담아 마시며, 의미 있는 강의를 듣고, 곳곳에 자리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행복한 ‘어느 한때’를 상상하며.

발상의 전환과 골목비엔날레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28개 지자체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을 추진했다. 사업 기간이 짧은 데다 예산도 넉넉하지 않아 많은 지자체들은 변화를 그리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기존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도심 골목길부터 섬마을 담벼락까지 “딱딱이 달지 않네” 그림과 설치물들이 걸려 있어 때론 ‘벽화 공해’로까지 느껴진 터라 조금은 다른 결과물을 기대했던 광주에서도 과거

70년 세월 품은 ‘우리 모두의 집’

를 답습한 일부 작품들이 눈에 띄어 아쉬웠다.

‘별별별서’ 프로젝트에 관심이 갔던 건 ‘발상의 전환’에 눈길이 끌렸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는 여타 지자체와 달리 ‘집’을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살려 낸 박옥수 근대가옥은 1954년에 지어진 집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과 함께 많은 스토리들이 쌓여 있는 공간이다. 광주의 핫플레이스 동명동을 찾을 때마다 문화공간이 거의 없는 점이 늘 아쉬웠었다. 그랬기에 무려 38명의 예술인들이 의기투합해 만들어 내는 ‘공간’이 어떨까지 무척 기대가 크다.

올해 처음 열린 ‘양림동골목비엔날레’(5월9일까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행사다. 양림동에는 작가들이 많이 살고 야기자기한 문화공간도 많아서 ‘우리동네 비엔날레’같은 것을 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터라 행사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가웠다. 무엇보다 골목 비엔날레는 지자체 예산 지원 없이 치러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마을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양림동의 기획자와 작가들은 고민을 이어 갔고, 주민들을 참여시켰다. 이야기를 풀고 있는 골목길 등 문화자산을 활용하고, 식당·카페·빈집 등을 전시 공간으로 엮어 볼거리를 제공했다. 마침 광주비엔날레가 양림동에서도 열려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본 후 자연스레 동네를 산책하며 양림동 속으로 흠뻑 들어온다. 첫 행사여서 미숙한 점도 있지만 일반 관람객들은 물론이고 진도군 등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가기도 했다. 여기에 양림동 이의 지역에 살고 있는 작가들의 문의도 이어져 내년부터는 작가를 공모할 예정이다.

양림동에서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바로 옆 레지던시에서 만날 수 있는 ‘당신의 주제 $\times$ 스스브’전이다. 자그 마딸리가 뎀데믹을 겪은 인류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주제로 짚은 ‘시간, 죽음,

슬픔, 장례식’을 주제로 한 이번 기획전에는 김승택 등 8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역시 작가와 레지던시 운영자가 자비를 들여 기획했다고 한다.

코로나로 비엔날레 관람 인원이 제한돼 대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레지던시 공간으로 발길을 옮겨 또 다른 작품들을 감상한다. 당초 30일까지였던 전시는 비엔날레 폐막일인 5월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행사에서 가능성을 본 주최 측은 꽃이 아름다운 매년 4월 아트폴리곤과 레지던시 등 4개 전시 공간을 모두 열어 재미있는 전시를 꾸려 볼 생각이란다.

‘뻔하지 않은 무언가’ 만들어야

발상의 전환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어느 분야에서나 다 필요하겠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닌가 싶다. 특히 예술가들의 기발한 상상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멋진 경험을 선사한다. 아이디어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낳고, 모험처럼 보였던 머릿속 구상을 일단 구현해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기도 한다.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해 “뻔한 벽화 작업이 라면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한 작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주어진 예산에 맞춰 관례에 따라 고만고만한 행사를 치를 수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은 뻔하지 않은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 광주의 문화 생태계는 훨씬 풍성해질 것이다.

동명동 근대가옥은 오는 9월 문을 연다. ‘우리 모두의 집’이 된 그곳에서 가을 어느날, 근사한 일들이 더욱 많이 벌어지기를! 양림동 골목비엔날레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전시도 해마다 더 멋진 모습으로 열릴 수 있기를! 우리의 발길을 붙잡을 발칙한 상상력의 문화 행사들이 더 많이 펼쳐지기를!

/mekim@kwangju.co.kr

코로나 백신 접종 사례와 주의 사항

이었지만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은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미리 준비한 해열제와 같은 약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안과에서 황반변성 약과 혈압약, 관절약을 드시고 계셔서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연스럽게 이겨 내셨습니다.

다음은 필자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여성분들이고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들로 네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금요일에 접종을 받았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무를 통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0대 후반인 한 명은 평소 식욕도 좋고 건강한 체질이었지만 주사를 맞고 두 시간 정도 지나자 얼굴이 마치 겨울에 찬바람을 심하게 맞은 것처럼 근육이 불편해졌다가 두어 시간 후에는 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 입덧하는 것과 같은 증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는 주사를 맞은 부위가 근육통처럼 남아 있고 피부를 스치면 따끔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은 손과 발이 약간 붓는 느낌이었고 주먹을 쥐면 약간 불편한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이무렵성으로 예방주사를 맞은 뒤에 통증이나 몸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른 약국의 직원들 중에 약을 먹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는 직원은 더 심한 증상으로 힘들어 했고 반면에 미리 약을 복용한 직원은 그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간 것 같다고 경험담을

예기했습니다. 젊은 분들의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방주사는 미리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성질의 물질을 몸에 넣게 되면 우리 몸은 그것을 해로운 물질로 인식하고 인체의 방어기전을 총동원시킵니다. 이렇게 한번 훈련을 치르고 나면 혹시 나중에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싸우게 되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보다 앓는 정도가 훨씬 가볍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정도도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적으로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똑같이 잔치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분은 탈이 나고 다른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양의학으로는 이를 알려지라고 합니다. 자신이 특정 물질에 대해 특이하거나 과민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신도 이러한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백신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거나 젊은 층에서 더 반응이 강력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연세 많으신 어머님께서 오히려 수월하게 극복하신 것이 그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이한 체질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백신을 통해 건강하고 자유스러운 일상을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주택 재개발로 한옥 시범단지 만들자

이 뒤따를 것이다.

여러 복합적인 문제의 발생 소지에도 불구하고 성행하는 초고층 아파트 위주 재개발 사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옥 집단주거 시범단지의 건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옥단지의 건설은 60~100호 규모로 하여, 대부분은 일반 주택으로 이용하고 5~10호 정도를 관광객 숙박시설로 상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의 외부는 전통 한옥 양식에 충실하고 내부 구조는 현대시설로만 들어서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또한 자연스러운 골목길과 고층스런棟群, 아담한 정원 등을 조성하여 옛 정취를 살려 낸다. 단지 내에는 일정한 크기의 연못과 정자를 배치하여 경관과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한옥 주거 단지의 건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풍성하다. 첫째, 산뜻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차단하고, 자연 친화적인 소재와 조형물을 조성하고 배치함으로써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도시 건설에 한걸음 더 근접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지역 내의 특색 있는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외지인들이 찾아오면 볼거리와 놀거리가 그리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옥마을 골목길 투어와 오롯한 광주 문화의 체험은 뜻깊은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셋째,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강력한 상징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주인권도시라는 슬로건이 광주의 상징성이듯 한옥문화단지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점차 역사문화

도시 광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한옥마을의 조성과 더불어, 도심권역의 재개발도 틀에 박히다시피한 고층 아파트 위주의 건립 방식을 지양하고 정원을 갖춘 고급형 개별주택단지, 독특한 디자인과 형태를 가진 빌라단지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도의 밀집화를 지양하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존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유럽의 유서 깊은 역사도시처럼 도심 주거지역을 격자형으로 구획하고 6~8층 정도의 불룩형 중앙복합건물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과 도심의 과밀화 방지를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사업 구역 내의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은 최대한 살려낸다. 이렇게 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도심권의 쇠퇴를 방지하면서도시 도시 미관 증진과 역사성을 보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실 아파트 건립 일변도의 도시 재개발은 사업 진행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손쉬운 재산 증식의 방편이 되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사회문화적인 통합,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보다 치밀하고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한 행정당국이 기존의 규정과 관행에 안주하기보다는, 복합적 국면의 타개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아름다운 문화 선도 도시를 건설하는데 적극 나서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

社 說

‘태양광 발전’ 갈등 계속 느는데 해결책 없나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전남 도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둘러싼 시위와 소송 등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와 주민 및 지자체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남 지역 시군에서는 마을 경관과 산림을 훼손한다며 태양광 개발을 중단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도 태양광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이 사업 허가를 내 준 지자체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는가 하면 사업자들이 주민 합의나 발전 기금 기부 등을 내세워 사업을 불허한 자치단체와 소송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남에서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은 최근 5년간 무려 414건에 이른다. 지난 2016년 20건에 그쳤던 민원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2018년 153건, 2019년 109건 등으로 폭증하

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피해는 자연경관 침해와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 271건, 생활과 건강권 침해 131건 등이다.

특히 지자체가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기는커녕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당사자들에게만 떠맡기면서 마을 공동체가 둘로 갈라지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나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려면 우선 자치단체가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개입함으로써 주민과 사업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독일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갈등을 해결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그 이익 또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절실한 때다.

백운산 학술림은 광양 시민들의 자산이다

일제는 1912년 지리산과 백운산에 도교대 연습림을 조성했다.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토지 조사 사업을 벌이면서 백운산의 109.65㎢와 지리산의 52.45㎢ 등 162.1㎢ 규모의 산을 연습림으로 만든 것이다. 이와 관련 향토 사학자들은 “일제가 혹독한 세금을 앞세운 토지 수탈 정책을 펴, 향교와 민간인들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사실상 땅을 빼앗은 셈’이라고 주장한다.

도교대 연습림은 해방 이후 국유화됐으며 관리권이 서울대로 넘어가면서 서울대 남부 학술림이 됐다. 이후 백운산 학술림은 연구 목적으로 서울대가 관리해 왔으나 2011년 12월 법인화 전환 이후 10년째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서울대 법인 설립·운영 법률’을 보면, 법인 설립 당시 관리 중인 국유재산은 법인으로 무상 양

도하도록 돼 있긴 하다.

한데 서울대는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연구 과제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광양 시민들은 “서울대가 아직도 무상 양도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와 시의회는 최근 서울대 학술림의 무상양도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무상양도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이 이처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학술림이 서울대 법인으로 넘어가면 영리 목적의 일대나 매각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광양 시민의 반대가 큰 만큼 무상양도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광양 시민의 자산이며 삶의 터전인 백운산을 가져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無 等 鼓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실패를 거울삼아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는 흔히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말을 사용한다.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도 어떤 교훈을 얻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한다는 뜻이다.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인데도 정치권에서는 이 말을 잘 모르는 듯하다. 최근 치러진 4·7 재보궐 선거 이후 이들의 행태만 봐도 그렇다.

다 알다시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참패를 당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뒀다. 민심은 여당에게 ‘회초리’를 들었으며야당에게는 ‘기회’를 주었다. 여당은 그동안 ‘촛불 민심’에 힘입어 정권을 얻고, 174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면서 승승장구했다. 여당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박탈’과 국유보수 노선으로 치닫는 국민의힘에 대한 성난 표심의 심판이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 이후 뚜렷한 리더십 없이 정치적·이념적 노선에서 일관성을 찾지 못하면서 정당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

민의힘이 내부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 먹었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당이 21대 총선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힘 덕분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의 잇따른 실패와 일부 여권 인사들의 불공정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돌아섰다.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양당 모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특

히 야당의 과거 회귀 현상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심’에 힘입어 정권을 얻고, 174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면서 승승장구했다. 여당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박탈’과 국유보수 노선으로 치닫는 국민의힘에 대한 성난 표심의 심판이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 이후 뚜렷한 리더십 없이 정치적·이념적 노선에서 일관성을 찾지 못하면서 정당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기 고



김형주
전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지금 광주는 원도심은 물론 부도심 지역에 이르기까지 시내 일원이 가히 재건축의 부흥기를 맞이하듯 고층 아파트 건립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뛰어넘어 ‘아파트 제국’이 형성될 조짐마저 보인다.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다수의 뜻있는 시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부작용을 표명하고 있다. 위성도시인 나주·화순·담양·장성에서 들어오는 4대 관문은 초입부터 아파트 장벽이 거대한 요새처럼 가로막아 광주라는 본래의 정체성 대신에 답답한 마음을 먼저 자아내게 한다.

광주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돌고 있으며 아파트 주거 비율도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20여 곳에 이르러는 원부도심 지역의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점차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즉, 도심 고집적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 교통혼잡의 문제, 아파트 선호에 따른 방치된 독립 폐가 문제, 노후 아파트의 슬럼화 문제, 시차를 두고 발생할 과잉 공급에 따른 집값의 하락 등 많은 복합적인 문제 발생